

Japan Weekly Digest

2012. 3. 17. ~ 2012. 3. 23

☐ 금주의 이슈

- 한·중·일 투자협정 합의
- FTA활용 목적의 해외생산 확대

☐ 일본기업전략

- 일본 GBC, 중국기업에게 일본기술자 소개
- 신에츠화학, 중국에 희토류 합금공장 설립

☐ 경제산업성 동향

- 일본정부, 지적재산권 추진계획 발표
- 텔리-뽀마이 산업대동맥구상 프로젝트 조인

☐ 보고서 리뷰

- 『제로금리하의 장기디플레이』 일본은행, 3월17일



한일경제협회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
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(Tel.02-3014-9888)

◆ 금주의 이슈

□ 한·중·일 투자협정 합의

- 한국, 일본, 중국이 투자협정이 각국의 국회비준 절차만 남겨놓고 실질적인 합의에 이름. 이번 투자협정에 대해 일본 측에서는 한·중·일 FTA교섭에 긍정적인 효과와 중국에서 활동하는 일본 기업들에게 메리트가 클 것으로 평가
- 일본 기업이 중국에서의 투자수익을 확보하는데 있어 투자협정이 중요하다고 판단, 노다 수상이 작년 원자바오 수상과 가진 회담에서도 투자협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FTA교섭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힘
 - 특히 일본으로서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일본 기업이 중국정부를 국제기관에 제소하기 쉽게 된다는 점에서 이번 투자협정의 의미를 부여
 - 또한, 일본 기업이 중국에서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중국정부가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되고 지적재산권의 보호범위도 확대
- 한국은 중국과 이미 높은 수준의 투자협정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, 이번 한·중·일 투자협정으로 중국에서의 한·일간 경쟁에서 일본 기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진다는 일본측 평가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

□ FTA 활용 목적의 해외생산 확대

- 일본의 주요 제조업체들이 FTA활용을 위한 해외생산을 확대하고 있음. 도시는 화력발전용 터빈공장의 생산능력을 키워 동남아 등에 수출. 도요타자동차도 미국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한국에 수출하기 시작
- 해외공장에서의 제3국 수출은 2010년 1888억달러 수준이었으나, 최근 10년간 3배 이상 증가. FTA체결에 따른 무관세 혜택이 있는 최적지에서 수출로 대체함으로써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임
 - 경제산업성의 현지법인 동향조사에 의하면, 해외거점에서 제 3국 수출은 2001년 617억달러에서 2010년 1888억달러로 증가, 2011년에는 엔고로 인한 일본으로부터의 수출채산성 악화 등의 요인이 겹쳐, 2천억달러로 증가
- 해외에서 FTA활용과 함께, 일본 내에서도 산업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TPP 및 EU등과의 FTA교섭을 가속화하는 일본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업계를 중심으로 고조되고 있음

◆ 일본기업전략

□ 일본 GBC, 중국기업에게 일본기술자 소개

- 일본의 헤드헌팅기업인 GBC(Global Business Creation)가 기술자 소개업분야 최초로 중국기업들에게 일본 기술자 소개에 나섬
- 중국 상해, 심양 등의 도시와 제휴하여 지방자치체의 조성금을 활용하는 현지 기업에 해외기술자를 소개. GBC는 향후 3년간 300명 정도의 기술자 소개를 목표로 하고 있음
- GBC는 중국의 그룹인 「上海中研」 통해 작년 12월, 심양시와 「해외고급인재과 건에 관한 포괄적 제휴」를 맺은데 이어, 상해시, 무석시 등과도 동일한 제휴를 맺기로 합의
- GBC는 중국의 각 도시를 통하여 지방기업들로부터의 기술자 모집 안건을 접수, 기술자를 중심으로 전문분야 간부급의 일본기술자를 중국기업에 소개
- 일본인을 채용하는 기업들은 소개 수수료와 급여의 일부를 시에서 많게는 1인당 5천만엔 정도의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기술자 소개에 드는 비용을 절감
- GBC는 일·중간에 특화한 헤드헌팅 기업으로 이미 30명 이상을 중국기업에 소개한 실적이 있음
- 주된 소개대상은 50대 이상의 기술자로 연봉은 1천만~5천만엔 정도가 가장 많고 연봉 1억엔 이상 사례도 있는바, 앞으로 중국 각 시와의 제휴를 활용, 소개활동을 확충할 계획

□ 신에츠화학, 중국에 희토류 합금공장 설립

- 신에츠화학은 중국에 희토류 합금공장을 건설, 생산되는 전량을 일본에 수출, 하이브리드 자동차용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고성능자석 원료로 사용
- 신에츠화학은 일본·미국·EU 공동으로 중국의 수출제한조치를 WTO에 제소, 해결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출제한품목이 아닌 합금형태로 현지에서 생산하여 일본에 공급할 계획
- 신에츠화학은 중국 복건성에 15억엔 정도를 투자, 년산 3000톤 규모의 공장을 건설, 내년부터 가동예정으로 고품위합금의 세계 최대급 공장임
- 신에츠화학은 현재 희토류 합금과 고성능 자석 모두를 일본에서 생산하고 있는데, 고성능 자석은 기술유출을 우려, 해외생산은 전혀 하지 않고 있음

◆ 경제산업성 동향

□ 일본정부, 지적재산권 추진계획 발표

- 일본 지적재산권본부(본부장: 노다총리)에서 23일 발표한「지적재산권추진계획」에 의하면, 일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발광다이오드(LED)조명, 생활지원로봇 등 첨단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해 인증기관 창설 등을 제안
- 同 계획에는「지적재산권이노베이션 종합전략」과「일본 콘텐츠종합전략」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5월경 구체적인 일정계획을 작성할 계획
 - 지적이노베이션 종합전략은 일본의 기술·규격이 국제표준으로 사용되도록 기술인증기관 육성을 지원
 - 콘텐츠 종합전략에서는 저작권을 둘러싼 환경정비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이 주요 골자
- 또한, 애니메이션 등 일본이 자랑하는 콘텐츠 관련, 정보통신 인프라 정비작업에도 착수,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

□ 텔리-뭍바이 산업 대동맥구상 프로젝트 조인

- 일본·인도 정부간 추진되어 온 텔리-뭍바이 산업대동맥구상 스마트커뮤니티 프로젝트 사업계약이 조인
- 동 프로젝트는 텔리-뭍바이구상에서 일·인도간 민관협력에 의한 인프라정비의 제 1호 안건으로서 작년 12월 정상회담에서 조기실현에 합의
- 텔리-뭍바이 산업대동맥구상은 2009년 일본·인도 정상회담 합의내용에 따라, 경제산업성이 2010년부터 스마트커뮤니티 프로젝트 추진 대상인 6개 지역에 에너지, 물, 교통, 리사이클 분야의 사업타당성에 관한 조사지원을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해 왔음
- 이번 계약은 인도 구자라트 주 다헤지에 히타치, 이토추 등 일본컨소시움이 실시하는 아시아 최대 해수담수화사업에 관한 것으로서, 구자라트 주정부의 관련기관인 다헤지 SEZ운영회사와 물 공급에 대해 기본합의

◆ 보고서 리뷰

『제로금리하의 장기 디플레』

일본은행, 3월17일

□ 일본경제 「2개의 제로」 현상과 장기침체 공존

- 일본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정책금리와 물가상승율이 제로 주변에서 맴돌고 있으며, 「2개의 제로」 현상은 일본경제의 화폐적 측면을 특징하는 것으로서, 실물경제 특징인 경제성장율의 장기침체와 짝을 이루고 있음

□ 「2개의 제로」 현상 원인

- 제로금리 현상에 대해서는 자연이자율(저축의 균형을 이루는 실질이자율)의 하락(마이너스 수준)을 계기로 발생한다는 견해와 기업 및 가계가 어떠한 이유로든 강한 디플레 예상을 갖게 되고, 이것이 기점이 되어 자기실현적인 디플레 균형에 빠진다는 견해가 있음
- 시산결과에 의하면 일본의 제로금리 원인으로 부의(마이너스)자연이자율설이 유력하나, 기업 및 가계의 강한 엔고 예상으로 인한 디플레균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
- 물가와 관련해서는 원가 및 수요가 변화하더라도 즉시 판매 가격을 올리지 않는 기업이 90%를 넘고 있어, 이른바 가격경직성이 존재. 나아가 1990년대 후반 이후 가격의 조정빈도가 높아지는 한편, 가격의 조정은 소폭에 머물고 있는바, 소폭의 가격조정이 물가하락을 완화시키고 있음
- 소폭의 가격변동 배경에는 라이벌기업들이 가격을 변동시키는 경우 당해 기업도 가격을 변동시키는 기업간 상호견제 가능성 때문임

□ 유동성 함정과 가격경직성 간의 관계

- 「2개의 제로」 현상은 케인즈가 제시한 「유동성 함정」 과 「가격경직성」 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. 그러나 유동성 함정에 대해서는 케인즈 이후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, 가격경직성의 경우에도 그 원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진 것도 최근 10년 정도에 불과
- 그동안 일본에서 2개의 제로현상에 관한 논의가 흥미를 거듭, 정책대응이 부진한 배경도 위와 같은 사정을 간과할 수 없음

□ 시사점

- 이상의 「2개의 제로」 현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예를 들수 있음
 - 제로 금리하에서 중앙은행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?, 통화량을 늘리는 것이 유효한 것인가?, 공개시장 조작으로 무엇을 구입해야 하는가, 어떠한 금리정책을 실시할 것인가?
- 마찬가지로 물가하락에 대해서도, 지금까지 15년 동안 지속된 장기디플레이의 확실한 원인이나 처방전이 제시되고 있지 않은 바, 케인즈의 남아있는 숙제라고도 할 수 있음

*출처: http://www.boj.or.jp/research/wps_rev/wps_2012/wp12j03.htm

【금주의 일본 주요 보고서】

- (1) 『제로금리하 장기디플레이』 일본은행, 3월17일

*출처: http://www.boj.or.jp/research/wps_rev/wps_2012/wp12j03.htm

- (2) 『해외사업을 통한 일본기업의 국제경쟁력 재건』 국제투자무역연구소, 3월17일

*출처: <http://www.iti.or.jp/kikan87/87tejima.pdf>

- (3) 『TPP와 동아시아 경제통합』 국제무역투자연구소, 3월17일

*출처: <http://www.iti.or.jp/kikan87/87umada.pdf>

- (4) 『서비스산업과 일본의 구조변화』 국제무역투자연구소, 3월17일

*출처: <http://www.iti.or.jp/kikan87/87ono.pdf>

- (5) 『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만 수출입제도 개혁』 경제단체연합회, 3월22일

*출처: <http://www.keidanren.or.jp/japanese/policy/2012/018.html>

- (6) 『경상수지적자화 가능성과 바람직한 경제정책』 경제산업연구소, 3월23일

*출처: <http://www.rieti.go.jp/jp/events/bbl/12030701.html>